

월요논단



김 동 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 2일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24일까지 네 차례의 공방전이 펼쳐진다. 열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중부러진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상식 수준에서 발언코자 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쉽게 판단될 일인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준을 내세우다보니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구 70만 명도 안 되는 섬에 민간 공항이 2개인 곳이 있을까? 아마 없지 않을까 싶다. 인구 145만 명의 일본 오키나와현(沖縄縣)의 경우 주민

제2공항은 전혀 명분이 없다

90%가 오키나와 본섬에 거주하는데, 본섬의 민간공항은 나하(那覇)공항 밖에 없다. 오키나와의 소음공해가 일상화된 것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공항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인구가 대폭 늘어날까? 천만의 말씀! 2010년 이후 계속 늘어나던 인구도 작년에 이미 멈춰 서지 않았는가? 2019년 순유입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 않은가? 이제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다시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늘어난다고 해도 80만을 넘기긴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민 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관광객이 연 1500만 명이나 된다고? 아니, 그보다 더 드나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만하자. 그만하면 됐다. 쾌적한 환경을 눈앞의 수입과 맞바꿀 수는 없다. 관광객을 수적으로 더 유치하려고 애쓸 일이 아니다. 질적 관리를 통해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

어진 과제다.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임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그것은 활주로 문제를 개선하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하지 않은가? 게다가 포화상태임을 느끼는 것은 공항청사가 비좁은 데도 원인이 있다. 청사를 증개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하늘길에만 의존하지 말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뱃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사통팔달로 연결 가능한 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성찰케 한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 향후 관광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드러 나타나고 있듯이, 앞으로는 소규모로 쉬엄쉬엄 다니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여행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에 강정해군기지 문

제를 흑독하게 경험한 바 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군복합관 광미항'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거기에 과연 민간의 영역은 얼마나 있는가? 그곳으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는가? 아름다운 항구라며 그곳을 보러 찾아가는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가?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주민들은 잘살고 있는가? 지역경제는 나아졌는가? 고용창출 효과는 어떠한가? 그나마 강정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밀어붙였지만, 제2공항은 전혀 다르다. 군사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임을 정부에서 수차례 공언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면 그 계획은 철회해야 민주사회 아닌가? 설사 찬반이 팽팽하더라도 그런 갈등사안에 대해 전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강행해야 하는 까닭이 뭔가? 제2공항은 전혀 명분이 없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게 상식 수준의 결론이다.

사설

원구성 마친 도의회, 제역할 기대된다

국회는 지방의회든 마치 연례행 사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할 때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감투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국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한달 넘게 공전을 거듭한 끝에 원구성을 할 정도로 진통이 컸습니다. 국회와 달리 제주도의회는 큰 갈등 없이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비교적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졌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반발해 왔던 미래통합당이 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회 중 상임위원장 5석은 민주당에, 1석은 무소속에 배정됐습니다. 통합당은 당초 요구했던 상임위원장 1석 대신 향후 특위 구성시 우선권을 갖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실제 통

합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원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본회의 보이콧' 등 강경투쟁론이 제기되면서 자정도로 진통이 컸습니다. 국회와 달리 제주도의회는 큰 갈등 없이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비교적 원만하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졌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반발해 왔던 미래통합당이 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회 중 상임위원장 5석은 민주당에, 1석은 무소속에 배정됐습니다. 통합당은 당초 요구했던 상임위원장 1석 대신 향후 특위 구성시 우선권을 갖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실제 통

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기억하세요



오 상 열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뒤 과세하는데, 주거용 건물(단독주택·아파트·빌라 등)을 제외한 건축물(창고·사무실·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된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주택별 재산세는 기존에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 납부를 했지만, 2019년부터는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 시키고자 세액 20만원 이하의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대

지에 대한 토지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다. 7월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다. 납기가 지난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세액이 매달 1.2%씩 가산돼 최대 6개월까지 부과되며 꼭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 또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정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모든 납세자들이 상생의 마음으로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

뉴스-in

“집행부·의회, ‘공명조’ 같은 공동운명체”

좌남수 신임 도의장 강조
○...제11대 제주도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면서 '공명조(共命鳥)'를 언급, 향후 진행될 제2회 추경안 및 조직개편 심사항향에 미칠 영향에 관심. 좌남수 의장은 지난 3일 제384회 임시회 폐회사 말미에 “소중히 대해야 할 상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되며, 반복과 갈등을 겪으면 결국 함께 공멸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며 '공명조' 일화를 소개. 좌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공명조’와도 같은 공동운명체”라고 피력. 오은지기자

주변에서의 무신고 식품조리·판매 행위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행위를 중점 확인. 시 관계자는 “적발된 소규모 포장마차와 차량이용 업소는 행정지도, 고정전막 설치 업소는 형사고발 방침”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자치경찰 들개 포획까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역밀착 치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들개 포획까지 나서 이목이 집중. 송당행복지안센터는 송당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시간에 교통안전 지도와 함께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 단속, 유기견과 들개 포획까지 진행. 송당초 관계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를 위해 슈퍼마켓처럼 활약하는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주길 바란다”고 기대. 송은범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부상돈(전북대 교수) 부친 권 범(변호사) 장인이신 제주부공 경찰(향년 81세)께서 2020년 7월 4일 13시 57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7월 7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0년 7월 8일(수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
▶ 장 지: 선흘리 1462-3 선영
부인 현덕자
아들 부상돈 며느리 김순희
딸 부애진
부애정 사위 권범
*연락처: 부상돈 010-7139-4264 권범 010-4751-7488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6월 26일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0년 9월 7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7월 6일
주식회사 명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로 44, 207동 1203호 (노형동, 노형뜨란채)
정신인 강철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흘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